

2024. 3. 27.(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3월 26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담당 부서: 서울디지털재단 스마트라이프팀

스마트사업본부장(겸직)		주성환	02-570-4612
스마트라이프팀장		한태환	02-570-4670
담당자	사업운영	정규정	02-570-4665
	언론홍보	유채란	02-570-4625
관련 누리집 (메뉴)		<a href="https://sdf.seoul.kr/index">https://sdf.seoul.kr/index</a>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5쪽

# 서울시 혁신기업, 대만 SCSE서 약 397억 원 수출 상담 성과 창출

〈스마트 시티&서밋 엑스포〉

- 서울디지털재단, 아시아 지역 최대 규모 스마트도시 전시회 ‘SCSE’서 〈서울관〉 운영
- 서울 소재 혁신기업 5개사와 함께 수출 상담 451건, 상담 금액 2,950만 달러 성과
- 영국·헝가리 등 전 세계 도시에 서울시 디지털 정책 홍보 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서울시, 10월 열리는 ‘서울 스마트라이프 위크’ 성공적 개최 위해 〈서울관〉서 홍보

지난 19일(화)부터 4일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아시아 지역 최대 규모의 스마트도시 전시회인 ‘2024 스마트 시티 서밋&엑스포(Smart City Summit&Expo, SCSE)’가 22일(금)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 ‘SCSE’는 매년 3월 대만에서 개최되는 스마트시티 전시회다. 11주년을 맞이한 올해에는 46개국, 112개 도시, 85명의 시장·부시장이 참석하며 방문객이 전년 대비 약 13%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강요식)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SCSE’에 참가해 〈서울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혁신기업 5개사와 함께 4일간 수출 상담 451건, 상담 금액 2,950만 달러(한화 약 397억 원) 규모의 성과를 얻었다.
  - 〈서울관〉에 참여한 혁신기업 5개 사는 ▲인공지능(AI) 기반 산업현장 안전 관리 솔루션의 ‘공간의 파티’ ▲인공지능(AI) 딥러닝 활용 스마트 건축물 공정관리 솔루션의 ‘업사이트’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내 공기질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의 ‘파이퀀트’ ▲바닥형 보행 신호등 솔루션의 ‘에이원트래픽알앤디’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에코 조명 솔루션의 ‘케이포시큐리티’이다.
  
- 특히, 참가기업 중 인공지능(AI) 기반 산업현장 안전 관리 솔루션을 가진 ‘공간의 파티(대표 강진규)’는 〈서울관〉 전시를 계기로 프리덤 시스템즈(Freedom Systems) 대만 기업과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확정, 아이스테이징(Istaging) 사(社) 본사 상호 방문 및 투자 관련 논의 등 실질적인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 강진규 대표는 “이번 서울관 전시를 통해 솔루션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 대만 현지 회사들과 실질적인 비즈니스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이런 계기를 마련해준 서울시와 서울디지털재단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 바닥형 보행 신호등 솔루션을 가진 ‘에이원트래픽알앤디’의 임형렬 회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스마트폰을 쳐다보며 신호등을 건너는 스몐비(smombie)와 같은 도시 문제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중요한 해결 이슈임을 깨달았다”며,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해 솔루션을 해외에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솔루션 전시 외에도, 서울관 참가 기업들은 ‘스마트 서울 기업 투자 설명회(IR) 피칭데이’, ‘서울관 VIP 솔루션 투어 및 네트워킹’ 등을 통해 서울시 솔루션의 경쟁력을 전 세계로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 서울디지털재단은 참여 기업 지원과 별도로 영국, 헝가리, 슬로바키아, 일본 등 전 세계 도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서울시 디지털 정책 홍보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박차를 가했다.
- 특히, ▲잭 차오(Jack Chao) 타이베이 시 최고데이터책임자(CDO)  
▲람 응우옌 하이 롱(Lam Nguyen Hai Long) 호치민 컴퓨터 협회장  
▲앨런 존 쿠(Allen John Ku) 대만 스타트업 아일랜드 총괄 디렉터  
등과 양 기업 상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 한편, 서울디지털재단은 오는 10월 열리는 ‘서울 스마트라이프 워크(SLW)’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타이베이 장완안 시장 등에게 SLW 초청장을 직접 전달하고 행사 참여를 독려했다.
  - ‘서울 스마트 라이프 워크’는 서울시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중심으로 도시·기업 간 첨단 스마트 도시 기술을 교류하는 장이 될 예정이다.
-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SCSE’는 단순히 기술 교류를 위한 비즈니스의 장을 넘어서, 전 세계 도시 및 기업 관계자가 모여 미래 도시를 위한 논의를 나누는 글로벌 무대”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얻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토대로 올해 10월 SLW 행사 방문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 1. 서울디지털재단 강요식 이사장이 대만 현지에서 장완안 타이베이 시장에게 올 10월 서울시에서 열리는 <서울 스마트라이프 워크(SLW)> 초대장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2. 20일(수) SCSE 2024 서울관에서 열린 스마트 서울 IR 피칭데이에서 '공간의 파티(대표 강진규)'가 자사 솔루션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 3. 아시아 최대 스마트도시 전시회인 SCSE 2024에 조성된 ‘서울관’이 현지 관람객으로 북적이고 있다.